

가정상담

2004

9

통권 253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건축의 해

4 • 이 달의 메시지

5 • 특별기획 1

양육비선급에 관한 주요한 제안

9 • 칼럼 결혼과 인생(21)

10 • 특별기획 2

호주제 폐지에 관한 국회의원 입장조사

11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14 • 인터넷 상담

15 • 상담소 소식

17 • 상담통계

18 • 지부한마당

19 • 지부 소식

법률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당동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02-8호
TEL: (02)2238-6554
월요일: 오후 9시30분 ~ 오후 4시30분
토요일: 오후 9시30분 ~ 오후 12시까지
법률상담 · 가정상담 · 자녀상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부부평등과 자녀·노인의 복지

조선시대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박무영 김경미 조혜란 저.
돌베개, 2004년 발행.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대표적 여성인물로 아들인 이율곡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각인 되어 있다. 지금 시대에 현모양처? 그래서 신사임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여성상이므로 이를 거부하려는 경향까지 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신사임당은 재능 많은 화가이며 뛰어난 시인으로 자기 의견이 분명한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한다 부인이 죽으면 새 장가를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자신이 죽은 후에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는 신사임당을 '현모'로 머물게 했고 대한민국 군사문화는 '현모양처'로 고정시켰다 남성들의 역사에 여성들의 진실은 묻히고 만다

여성 국문학자 3명이 쓴 「조선시대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은 '현모양처'와 '열녀'만이 여성 삶의 잣대였던 조선시대에 자신을 주체적 인간으로 자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열렬한 삶을 산 여인들의 열전이다

먼저 '현모양처'라는 이미지의 신사임당부터 재조명한다 사임당은 어린 시절부터 발휘된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보인 화가이며 시인이었고 시집 어른들에게도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당찬 여인이었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또한 사임당은 결혼 후에도 상당기간 친정 집에 머물며 부모님을 돌보기도 한다 송덕봉은 미암 윤희춘의 부인으로 자신의 문제를 임금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했고 남편이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음을 자랑하자 그것은 성현의 가르침을 따른 것 일뿐 아녀자

의 보은을 바라기 위한 행동은 아니라며 면박을 준다 친정 일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나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으니 당신도 사위의 도리를 다하시오'라며 꾸짖는다 허난설헌은 여성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한 시인으로 이로 인해 남성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다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인이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외로운 삶을 살다가 자신의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불운한 천재 시인이다 이옥봉은 서녀로 태어나 소설의 자리이지만 남편될 사람을 스스로 선택했고 훗날 필화사건으로 남편에게 소박맞고 불운하게 생을 마감한 시인이다 남겨진 기록에서 재기에 번득이는 천재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동 장씨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에서 아버지가 재가할 때까지 수발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을 시집에 데려와 돌봐준다 17세기 조선 양반가의 생활상과 음식을 재현할 수 있는 음식디비방'을 저술하여 일상의 삶을 기록하여 남겼다 임윤지당은 조선시대의 철학자로 '중용'을 읽으며 경전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비록 여자지만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품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논리를 펼쳤다 김만덕은 기생출신으로 자신의 능력과 경제력으로 기생이라는 신분을 거부하고 상인으로 크게 성공한다 제주도에 흥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풀어 많은 생명을 구한다 경제와 경영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성공한 여성기업가로 거론되기도 한다 풍양 조씨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한 여성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던 시대에 남편 따라 죽기에 실패하자 친정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남편이 죽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자기록'을 남겼다 '자기록'은 조선시대의 평범한 여성의 흔치 않은 기록으로 양반가의 생활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룩했느냐 보다는 억눌린 삶을 강요받던 시대에 여성이란 조건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위해, 또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인내하고 노력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남성들의 관점에서 쓰여지던 여성의 역사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무조건의 순종과 억압을 거부한 조선여인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

김 동 자 도서실장

삼가 명복을 빕니다

謹弔



본 상담소 홍란희 이사께서 지난 9월 3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회관 건립의 일등 공로자’

일찍이 상담소 설립자인 이태영 선생은 자전적 교유록 「나의 만남 나의 인생」에서 고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기록과 같이 고인은 상담소 후원을 위한 17인 클럽을 시작으로 1966년부터 상담소 이사, 건축위원장으로 현재 상담소 건물인 여성백인회관 건립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고인은 새로운 상담소 회관 건립을 위해 공동건축위원장을 맡아 마지막까지 상담소에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인의 큰 뜻은 상담소와 함께 길이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홍란희 이사님의 상담소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고 홍란희 이사 약력

- 1922년 충남 출생
- 1960년 한국걸스카웃 서울시 연맹 이사
- 1962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65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66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회관건립 건축위원장
- 1968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1969년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이영희 연합회장
- 1975년 국제소로미티스트협회 한국협회 부회장

2004년 8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순임, 강신일, 강영봉, 고광례,
오영순, 유항자, 이상옥,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고옥주, 김남숙, 김인숙,
김정혜, 노희자, 박선화, 백미도,
신문혜, 안현숙, 유문숙, 이봉옥,
이승민, 임현정, 전병화, 정윤경,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조경희, 김지현, 이경실,
김혜용, 엄희정, 임은하,
유경래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장원필,
이길연, 심미숙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고영소, 임주용, 문영택,
성낙환, 전정환, 심미숙,
이 준, 김문주 변호사 님

후원

일반회원이 되신 분
강순임,
대한간호협회(회장:김의숙),
하중홍 변호사(백인변호사단)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천정환, 홍순이,
오은경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씨회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